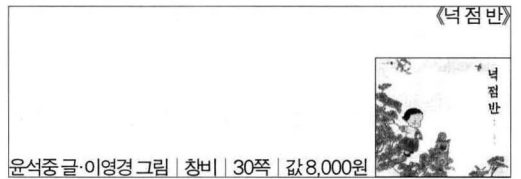


< “넉 점 반, 넉 점 반” 중얼거리며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 꼬마의 하루 >



윤석중글·이영경그림 | 창비 | 30쪽 | 값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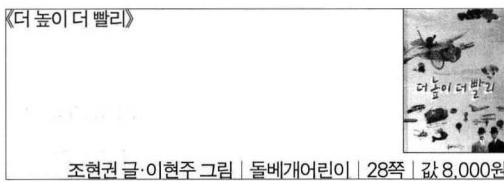
손목시계는 물론 핸드폰 시계까지 나온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시계가 없어 남의 집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는 이야기거든요. 단발머리를 한 귀여운 꼬마는 엄마 심부름으로 가게 영감님을 찾아 갑니다.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구요?”라고 묻자 영감님은 네 시 반인 것을 확인하며 “넉 점 반”이라고 대답합니다. 아! 넉 점 반이구나. 그런데 아이는 곧장 집에 가지 못해요. 아이 발길을 잡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혹시나 ‘넉 점 반’이라는 말을 잊어버릴까봐 중얼거리면서도 물 먹는 닭을 구경하고, 개미 거동을 한참 앉아 구경하고, 잠자리 따라서 돌아다니기까지 하는 꼬마. 급기야는 꽃 속에 궂물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꼴딱 저버렸지요. 아이는 그것도 모른 채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시방 넉 점 반이래”라고 말합니다.



뻥뻥스러우면서도 영똥한 면이 있는 아이의 표정이 너무도 귀엽게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야기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동시문학의 대가 윤석중 선생의 대표작이죠. 이 책에서 점잖이라는 말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넉 점 반’은 곧 ‘네 시 반’을 의미하지요. 무엇보다도 리듬감 있는 동시와 앙증맞으면서도 소박한 그림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게 눈에 띄입니다. 검정 고무신에 짧은 단발머리를 한 여자아이의 익살스러운 모습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젓을 물리는 정감어린 모습, 없는 게 없는 옛 가게의 내부 풍경까지 넉넉하진 못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우리 농촌의 옛 모습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달라는 것만 많은 아이들. 시계 없고 텔레비전 없어 남의 집 신세를 져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 비행기 나이는 101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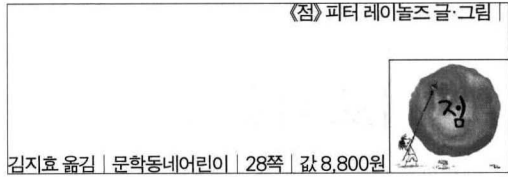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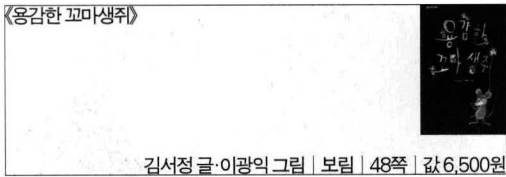


조현권 글·이현주 그림 | 돌베개어린이 | 28쪽 | 값8,000원

생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빠, 엄마, 동생 등 사람은 모두 생일이 있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사용하는 컴퓨터 비행기까지도 생일을 갖고 있답니다. 며칠이냐고요? 만들어진 날이 바로 생일이지요. 비행기는 올해로 태어난 지 101년째가 된다는군요. 여러분들의 나이와 비교해 보면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셈이지요. 이 책은 비행기가 탄생하게 된 과정들을 좇으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처음부터 비행기를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지요. 사람들은 열기구를 만들었다가 열기구가 바람의 방향으로만 가자 수소를 채워넣은 비행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비행선은 새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날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비행선 대신에 글라이더를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글라이더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타야 했고, 오래 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나온 게 프로펠러를 단 비행기였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보고 구름 가까이 가는 게 별 일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이 인류의 오랜 소망이었어요. 장난감 코너에서 비행기나 자동차를 갖고 놀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들에게 익숙한, 사물의 역사를 알려주는 기회를 주는 책입니다.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심어주는 책입니다. 주인공은 다름아닌 '쥐' 이지요. 자칫 실수로 밟을 수도 있을 만큼 작은 동물인 쥐가 무슨 용기를 가졌냐고 말하는 친구가 있군요. 그럼 일단 책을 펼쳐보세요.

달리기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체육시간이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수학을 못하는 친구는 수학시간이, 국어를 못하는 친구는 국어시간이 두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미술은 좀 다릅니다. 미술은 달리기처럼 빨리 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도화지 위에 열심히 표현하면 되는 거랍니다.

엄마 쥐는 아기들이 용감한 생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각각 용, 감, 한, 꼬, 마, 생, 쥐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생쥐들은 곧 엄마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모두들 여기저기서 제 힘을 발휘하며 잘 살아갔답니다. 용이는 북극에서, 감이는 숲에서, 한이는 바위산에서 이름을 날렸고, 꼬는 정글의 지휘자로, 마는 초원에서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동물로, 생

이 책을 쓴 피터 레이놀즈는 미술 현장에 있으면서 그림 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지요. 이 책에 나오는 베틀도 그림 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점 하나 찍어놓은 베틀의 그림을 본 선생님의 칭찬 덕분에 베틀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베틀의 그림은 자 대고 그린 것처럼 형식적인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이 친구만의 개성이 묻어난 자유로운 그림이었지요. 독특한 색깔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은 전시장에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빨강, 노랑 등 다양한 색채의 물감을 이용해 완성한 그림이 남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었거든요. 아마 긴 붓을 세워두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린 베틀의 노력을 읽은 건지도 모릅니다.



은 늪에서 어려움에 처한 동물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럼 막내 '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막내 '쥐'는 형제들과는 다르게 엄마 곁에 머물렀어요. 형들은 이런 막내를 보며 겁쟁이라고 비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쥐가 병이 났지 뭐예요. 뽀뽀이 흠뻑 젖던 형들은 엄마를 위해 고래, 곰, 독수리, 기린, 뱀 등을 잡아 집으로 찾아왔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엄마의 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때 힘을 발휘했던 건 막내 '쥐' 였지요. 막내 '쥐'가 고양이 의사를 데려오자 순식간에 숨어 버리는 형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었나고요? 고양이 의사만이 발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어떤 것인지는 책을 통해 만나보세요.



눈에 띄는 참신한 우리 어린이책입니다. 용, 감, 한, 꼬, 마, 생, 쥐라는 형제들의 이름부터 이들의 일화를 소개하는 리듬감 있는 문장, 생명력 있는 어휘까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책 곳곳에 보이지요. 힘을 앞세워 누군가를 호령하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마음깊이 보호하며 지키는 힘이 진정한 용기라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는 아이, 나는 왜 친구들처럼 그림을 못 그릴까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 말고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알려주세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태도, 아이가 완성한 작은 그림 하나에도 칭찬해주는 부모님의 배려도 함께 있어야겠지요. **김청연** 기자

